

## 국립공원 탄소중립 실천을 이끌 '기후행동 청년 봉사단' 모집

- '기후행동 청년 봉사단' 1,000명 모집, 6월 5일부터 신청 가능
- 2030세대 함께 온·오프라인 탄소중립 실천 문화 확산 주도

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(이사장 주대영)은 기후위기 대응과 국립공원 내 탄소중립 실천 문화 확산을 위해 2030 세대를 중심으로 '기후행동\* 청년 봉사단' 참여자를 6월 5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.

\* 기후행동: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탄소중립 활동으로, 에너지 절약 실천, 종이 사용 줄이기, 다회용컵 사용, 친환경 제품 구매 등이 해당됨

이번 봉사단은 기후위기로 위협받는 국립공원의 생태계를 보호하고 일상 속 탄소중립 실천을 통해 국민의 기후행동 문화를 확산하며, 청년들이 자연과 교감하고 이웃과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기획되었다. 특히 환경문제에 관심이 많고 사회관계망서비스(SNS)에 친숙한 청년층의 봉사활동 참여가 대국민 기후행동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.

모집 대상은 20세부터 39세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, 모집 인원은 전국 4개 권역(동부, 서부, 중부, 북부)별로 각 250명 씩 총 1,000명이다. 접수는 오는 6월 5일부터 6월 21일까지 17일간 진행되며, 국립공원공단 누리집을 통해 지원서를 작성하여 신청하면 된다.

'기후행동 청년 봉사단'은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 월 1회 이상 국립공원의 가치를 알리고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온·오프라인 활동을 수행한다. 온라인에서는 국립공원 내 에너지 절감을 위한 아이디어 제안과 기후행동 관련 홍보물을 제작하는 활동을 하며, 오프라인에서는 국립공원 나무심기 활동, 탐방객 대상 탄소중립 캠페인, 환경정화 등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.

활동에 참여한 모든 봉사자에게는 자원봉사 시간이 부여되며, 우수한 홍보물을 제작하거나 일정 횟수 이상 활동한 봉사자에게는 국립공원 대표인형(반달이) 등 다양한 기념품을 증정할 예정이다. 우수 참여자로 선정된 봉사자에게는 별도의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.

주대영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“사회관계망서비스(SNS) 소통에 능숙하고 행동 변화에 유연한 청년 세대의 참여가 국립공원의 미래를 지키는 강력한 동력이 될 것”이라며, “청년들의 기후 위기 대응 행동이 국립공원을 넘어 우리 사회 전반의 탄소중립 실천 문화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”고 밝혔다.

- 붙임 1. 모집 포스터.  
2. 봉사활동 사진. 끝.

담당 부서	국립공원공단 상생협력부	책임자	부 장	안철우 (033-769-9520)
		담당자	계 장	김소연 (033-769-9522)





**모집대상**

**지원자격** 20세~39세 청년 누구나  
**모집인원** 약 1,000명  
\* 월부, 서부, 중부, 북부 등 4개 권역별 250명씩 모집

**모집일정**

**모집기간** 6. 5.(금) ~ 6. 21.(일)  
\* 모집일정이 변경될 경우 홈페이지 공지

**지원방법**

**접수** 온라인 신청  
**접수사이트** <https://m.site.naver.com/27uW6>

**활동내용**

**활동과제** 탄소중립 실천문화 확산 및 기후대응 활동  
홍보 콘텐츠 제작, 국립공원 환경정화 활동 등  
**활동횟수** 월 1회 이상 봉사활동 진행

**활동혜택**

**포상** 우수 자원봉사자 포상금 지급  
활동횟수에 따른 굿즈 지급  
우수 콘텐츠 제작 시 기념품 지급  
**활동** 자원봉사 시간 부여

**문의**

국립공원공단 동부지역본부 담당자 055-771-8617  
국립공원공단 서부지역본부 담당자 063-711-7312  
국립공원공단 중부지역본부 담당자 043-716-1305  
국립공원공단 북부지역본부 담당자 033-815-8843  
국립공원공단 자원봉사 담당자 033-769-9522





사진설명: 국립공원 자원봉사 참여(배수로 정비)



사진설명: 국립공원 자원봉사 참여(환경정화 활동)